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20, 예레미야 26-36, 여호야김, 불순종의 패러다임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0회, 예레미야서 26-36장에 나오는 불순종의 패러다임 여호야김입니다.

우리 공과의 제목은 여호야김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서 26장과 36장의 두 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전 수업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 예레미야서 26장부터 4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책의 전반부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 중 이 부분은 예레미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순한 전기 그 이상입니다. 유다 백성과 왕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복되는 문제가 이 부분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백성과 왕들과 지도자들과 군대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26장부터 45장까지의 여호야김 프레임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석 격자를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26장과 35장에는 여호야김의 에피소드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장에서 35장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의 한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장에는 또 다른 여호야김의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시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45장에서.

그것은 두 번째 패널인 36장부터 45장까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섹션들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야김의 시대가 여러 면에서 분수령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들에서 우리는 여호야김의 불신이 실제로 어떻게 돌에
 굳어지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시작하시는 일이 돌이킬 수 없고 일어날 것인지를 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불신과 거부,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왕의 궁극적인 적대감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실제로 봅니다. 자, 이 두 부분, 즉 26장과 35장이 두 개의 패널을 소개했다는 점,
 즉 26장과 36장이 책의 후반부에서 두 개의 패널을 소개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서로 매우 밀접하게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네 가지 구체적인 유사점이 있으며, 그런 다음 각 장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둘 다 여호야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26장은 첫 번째 사건이 609년부터 597년까지 통치한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통치 초기 어느 때인가 예레미야는
 궁극적으로 왕의 불신을 드러낼 이 성전 설교를 전합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담아 성전에서
 읽으라고 명령하신 때가 36장 1절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두 이야기의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가 7장에서 읽은 내용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7장의 설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호와와 성전을 의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만일 그들이 그 길을 고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하신 일을 예루살렘과 그
 집에도 행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시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성전에 가서 두루마리를 읽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은 모두 성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특별한 설정이 이 두 이야기에 무게감과 진지함을 더해준다고 믿습니다. 성전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심판의 경고를 가지고 그곳에 올 때, 이곳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자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언약의 일부로서 그분의 축복과 혜택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맡기신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있음. 셋째, 이 둘은 모두 이야기이며, 이는 26장부터 45장까지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둘 다 예언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26장에서 예레미야는 구두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반응을 가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여기에는 종교 관리인 선지자와 제사장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공무원도 참여할 것이며 이들의 참여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36장의 두 번째 기록에서는 바룩이 성전에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에 반응할 것이다.

바룩이 모든 백성 앞에서 이 글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 메시지를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대한 상호 작용과 피드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식은 왕과 그의 신하들과 신하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우리는 그 소식에 대한 그들의 반응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유사점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에 관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선지자이다. 그들은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니다. 선지자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메시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구절과 이 두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후반부에서 두 가지 주요 블록을 소개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Lewis Stuhlman은 여호야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형이 됩니다. 그는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얻었지만 대신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산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야김이 남긴 유산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거나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궁극적으로 화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고 평가하는 영왕이 없습니다. 다윗의 가계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왕은 소수였습니다.

따라서 Kings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신학적인 설명이기도 하지만 이는 그들의 정치적 성공, 군사적 성취, 그들이 통치하고 통치할 당시의 국가 경제가 어땠는지, 통치 기간이나 지속 기간, 국민들이 가졌던 존경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을 위해 또는 사람들이 가졌던 무례함을 위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야김과, 사실상 예레미야 사역 당시 유다 계열 끝에 나온 네 왕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특히 여호야김에게서 그런 점을 봅니다. 그는 메시지에 대해 엄청나게 적대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예레미야와 여호야김이 직접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거나 반응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분노로, 적개심으로, 심지어는 선지자의 사자들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26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메시지에 대한 매우 간단한 요약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전 설교와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예레미야가 한 번 이상 설교했을 수도 있는 매우 유사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성전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듣고 각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고자 합니다.

괜찮은. 여기서는 몇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서 26~35장과 36~45장의 이 두 패널의 시작 부분에는 예레미야 사역의 이 단계에서 백성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이 책에 나오는 우리의 핵심 신학적 단어인 슈브를 버리고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말장난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ra'ah 또는 ra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재앙이나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신다는 뜻인데, 이는 라아(ra'ah) 또는 라(ra)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그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ra'ah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라아, 재난, 재난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인다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계획한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돌에 고정된 것들이 아닙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응답이 있다면,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6~35번 패널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기회가 패널 시작 부분에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패널의 마지막 부분인 35장에는 국가적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6장, 올라이, 어쩌면 그들이 응답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44장 마지막 부분에는 애굽에 살고 있는 피난민들의 반역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심판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부분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긴급성을 상기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 심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절박한 상황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책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유다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가 닫히는 것을 봅니다. 후반부에도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 이르시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듣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율법을 행하며 내 종 곧 내가 섬기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네가 듣지 아니할지라도 속히 네게 보내라 내가 이 집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나라의 저주가 되게 하리라. 이는 우리가 7장에서 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거의 공식적인 법정, 즉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참되고 유효한 주님의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제기하는 긴장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쟁은 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예레미야가 제사장과 백성과 선지자들의 말을 마친 후에 너희가 죽으리라 하리라 함이더라. 따라서 여기에 주어진 첫 번째 법적 판결은 예레미야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메시지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감히 여호와의 집을 대적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학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참된 선지자가 심판을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9절,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은 실로와 같겠고 이 성읍은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라 하였느냐. 그러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 있는 예레미야 주위로 모였습니다. 관찮은. 이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실로의 이야기와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에 너무나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조차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첫 번째 판결은 예레미야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대응은 이에 대응할 공무원들이 있고 국민들도 이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유다 방백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의 새 문 입구에 앉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공식적인 법적 절차처럼 보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또 말하노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백성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으니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 하더라. 관찮은. 다시 말하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가장 큰 반대를 일으키는 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이 말을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의 일부로 예레미야는 마침내 12절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레미야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신저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이며 당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설교할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재앙을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번에도 그들 앞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그들이 회개하거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고 옳은 대로 나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죽이면 당신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점만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괜찮은.

만약 우리가 이것을 공식적인 법적 절차로 본다면, 예레미야는 만약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자를 죽인 것과 무고한 피를 죽인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했을 뿐이므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괜찮은.

이제 예레미야와 그의 메시지에 대한 세 번째 응답인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 누가 여기서 이야기할지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관료들과 모든 국민들이 그러합니다. 이제 백성은 이쪽에 있고 관리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하되

좋습니다. 그들의 평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검증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때는 기원전 609년쯤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목하세요. 나중에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질수록 왕의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관리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고 백성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괜찮은. 그들은 어떤 증거를 제시합니까? 그들은 예레미야가 여기서 한 말로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확신합니다. 이제 그들은 역사적 선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미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실로의 역사적 선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 있는 자기 집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데 관리들과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확신하게 된 이유는 다시 역사적 선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역사적 선례는 선지자 미가의 사역과 메시지, 그리고 예레미야보다 한 세기 전 특정 심판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관찮은. 우리는 이전 세션 중 하나에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8절 모레셋 사람 미가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하여 유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은 밭 같이 갈아지겠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폐허와 집의 산은 숲이 우거진 높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서들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인용문과 미가서 3장 12절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100년 전에 선지자가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 선지자의 전통을 따른다. 이 심판의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사람이 그를 죽였느냐고 했습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누우치지 아니하셨느냐? 관찮은. 이 심판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 백성들에게 경고했을 때, 히스기야는 회개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위협했던 심판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18장의 신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딱칠 좋은 일이나 재앙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은 단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것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시적인 조건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그 조건은 대개 암시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한, 보라,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나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메시지에 응답할 가능성과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올바른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꾸고 판결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장로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적어도 예레미야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따라서 이 논쟁의 끝, 즉 예레미야의 신뢰성과 그의 사역과 메시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평가한 성전에서의 공식적인 법적 절차의 끝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 자신에게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인정받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다루는 예레미야서의 한 부분에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확증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더욱 더 큰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말은, 여기에는 인지적 부조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당신 자신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실로로 돌아가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부흥, 개혁, 갱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26장부터 45장 초반에 나오는 이 장면은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괜찮은.

이제 당신은, 글썄, 나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소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러티브와 이에 반응한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반응을 보았는데, 그들이 화를 내며 예레미야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들은 다소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관리들과 장로들의 편에 서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그리고 다양한 청중과 다양한 그룹이 반응하는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 관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괜찮은. 여호야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한 그의 평결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그는 이 장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화자가 하는 일은 이야기에 부록을 넣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선지자임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성전의 법정 장면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왕 자신은 절대적으로 적대적이며 이 심판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어떤 것도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야라는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여호야김 왕의 반응을 다루는 또 다른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우리야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경에 기록된 선지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왕의 반응은 우리야가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하여 애굽으로 도망한 것이니라.

그곳은 궁극적으로 예레미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곳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제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집트와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이용하여 관리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들은 우리야를 데려다가 다시 데려왔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에게로 끌고 가매 왕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버렸다고 합니다. 단순히 여호야김이 왕을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의 반응을 통해 그는 자신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불신의 전형적인 예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메시지의 타당성은 예레미야가 심판을 가져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26장에 나오는 관리들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심판에 대한 경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위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그런 종류의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분개하여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 이 이야기는 아마도 국민, 어쩌면 국가, 어쩌면 지도자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26장, 주사위를 던져라.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리는 심판을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아요.

26~35, 36~45번 패널 각각에서 가능성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올라이, 아마도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아끼실 것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그 부분의 끝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왕의 불순종은 이 두 패널이 우리에게 보여줄 내용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것이 왕의 삶에 반영되었습니다. 괜찮은.

이것이 첫 번째 패널인 26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패널의 시작 부분과 36장의 병행 구절로 가면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의 말씀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매우 분명한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메시지를 받아쓰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여호와와 말씀이다. 바룩의 말은 예레미야의 말 곧 여호와와 말씀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처음부터 제기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와 심판의 경고일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쉼마여,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지 말지어다. 3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내가 전한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약하라. 혹시 유다 족속이 라아의 모든 일과 모든 재앙 곧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재앙을 듣게 되리니 이는 사람이 다 그 라아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관찮은.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바룩을 성전으로 보낼 준비를 할 때, 바룩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어떤 용기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숨어서 나오기에도 너무 뜨거운 메시지입니다.

바룩이 메신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7절, 혹시 그들의 간구가 여호와 앞에 상달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라아 곧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진노와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바룩이 성전에 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관찮은.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심판의 경고입니다. 나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이 두루마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마리가 파괴된 후에 유사한 단어가 많이 추가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바룩이 성전에 가서 읽은 두루마리는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관찮은. 이제 질문은 2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에 무게를 두게 될 것입니다. 우선,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자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얻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오년,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관참은.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 메시지를 전할 매우 적절한 시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금식을 선포했고, 그것이 그들이 애초에 성전에 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의 표현으로 일년에 하루 속죄일에 금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유다 지도자들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고 선포한 특별한 금식일 것입니다. 관참은. 이것의 의미는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는 말에 특히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을 인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 두루마리를 읽는데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 듣고,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울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사실 에스라와 그곳의 지도자들은 애도를 그치고 오늘은 축하할 날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금식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에 대해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룩이 여호와와의 전 고모라 방에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이 듣는 데 낭독하니라.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언급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낭독되었습니다. 글쎄, 그들의 반응은 어디에 있나요? 26장에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처음에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관리들과 장로들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화자와 인터뷰할 수 있다면, 대답은 어땠을까요?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줄 사이를 조금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 덕분에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선포했던 금식의 공허함을 일종의 반영합니다. 내 말은, 그들은 거기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식은 죄에 대해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20년 동안 들어왔지만 응답이 없는 그들에게 직면한 예언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명하신 일을 행하겠다는 헌신과 순종의 반응이 없는 금식의 공허함을 말하는 몇 가지 다른 예언적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내 길 알기를 즐거워하노니 마치 그들이 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인 것 같으니라 내 말은, 그들은 종교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우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거 좋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 뜻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실제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까지 하는데, 두루마리를 들은 예레미야 청중과 여기 바룩의 청중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됩니다. 그들도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당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문제가 여기에 있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자기 쾌락만 추구하고, 너희 일꾼을 모두 학대하는구나.

여러분은 국가적인 종교 행사를 갖고 있으며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금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일하여 율법을 어기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금식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메시지가 두루마리를 듣고 있던 바룩의 청중들에게 매우 적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당신은 빨리 왔습니다. 여기서 실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단식하는 것은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뿐이니라. 오늘 너희처럼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너희 목소리가 하늘에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금식인가? 사람이 겸손해지는 날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입니까?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그 아래에 베옷과 재를 퍼는 것이냐? 이것을 금식이라 하겠으며 주께서 받으실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아시다시피, 성전에 가서 기도도 좀 하고 겸손한 척 하면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물론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내가 택하는 금식이 아니냐? 악의 결박을 끊고 멍에의 줄을 풀며 압제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배고픈 이들에게 네 빵을 나눠주고,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을 네 집에 모셔들이는 것이 아니냐? 벗은 자를 보고 그를 가리울 때에 네가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쓸 것을 돌보아 주거든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침이요 네 치유가 속히 이르리라.

괜찮은? 포로기 이후의 스가랴 7장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지켜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에게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식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까? 그들은 유배 기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스가랴는 진짜 문제는 금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36장에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왔지만 선지자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에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여기에는 메시지를 듣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관리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1절에서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언급될 때 언급됩니다. 이 가족은 예레미야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한 사람도 사반 가문의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중 예레미야의 지지자인 미가야는 그가 메시지를 듣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관리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바룩이 앉아서 그것을 다시 읽은 후에 18절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서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할 때, 그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지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왕은 안락한 궁궐에 앉아 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덕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홉째 달에 왕이 겨울 궁에 앉아 있는데 왕 앞에는 가마에 불이 타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예언의 두루마리를 읽어 줄 때, 여호야김이 칼을 들고 한 조각 한 조각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덕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물론 그것은 그의 노여움과 적개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나 그의 말을 듣는 신하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관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 재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야김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선지자가 메시지로 나를 정죄하고 싶다면 여기서는 누구의 말이 능력이 있는지 봅시다. 여기서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선지자인가, 아니면 왕인가? 그리고 그는 왕권과 왕위와 왕궁에서 선지자의 말을 불에 태웁니다. 어쩌면 어떤 마술적인 의미에서라도 메시지를 파괴함으로써 그것이 말하는 현실을 파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 선지자의 능력과 왕권 사이의 대결에 올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모든 군대와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와 모든 고관을 자기 편에 두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모세와 바로 사이의 대결이 어떤 의미에서 생각나네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몇 구절 뒤에는 그 장의 10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일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짚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이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결로 귀결됩니다. 모세의 말인가, 여호와의 말씀인가? 바로는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시며 그 말씀이 애굽 왕의 말에 대하여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누구의 말이 힘이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면서 따라오는 정말 심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관리들은 그를 숨길 만큼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첫째, 30절에서 여호야김이 그 나라에 심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자신에게 직접 내리시는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에게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고 그의 시체는 밖에 버려져 낮에는 더위, 밤에는 서리에 던져지리라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왕궁의 따뜻한 안락함에 앉아 왕권을 누리며 지내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는 적절한 장례식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더위와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관참은.

왕의 응답은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없애면 심판의 경고를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지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두루마리를 쓰라고 명령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첫째 두루마리 대신에 이 두루마리에 비슷한 심판의 말씀을 많이 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서를 구성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 예레미야와 바룩은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 내내 메시지를 계속해서 단어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변형하고, 개조하고 개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어, 우리가 그 책을 오늘날의 형태로 볼 때까지 말입니다. 관참은.

누구의 말이 힘이 있는가? 왕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힘은 주님께서 그의 사자와 종을 통해 전달하시는 메시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 여기 유다 왕들의 이야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 일부는 예레미야 시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행하실 희망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님께서 제11시에 개입하여 예루살렘을 위험에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학이 그들을 실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의 반응이 여호야김 왕과 후에 시드기야 왕이 할 반응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열왕기의 이야기와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전반에 걸쳐 왕들을 다루셨던 것에 비추어 여호야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왕기서로 돌아가면, 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세 명의 왕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해줍니다(왕하 18:5). 그는 믿음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앗수르에게 포위되었을 때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신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요시야가 가져온 개혁에 있어서 그와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다른 어떤 왕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고,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고,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습니다. 마지막 두 왕인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예레미야 26장과 36장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의 배후에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그들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두 가지 이야기에는 여호야김이 히스기야가 아니었고 여호야김이 요시야가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26장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가 시대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미가가 심판을 경고했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26장에서 그것을 읽은 직후 바로 같은 부분,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우리는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를 죽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분명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히스기야 시대와 같은 구원이 없을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두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나 36장으로 가면 이 말이 더욱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과 요시야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CD Isbell은 1978년 JSOT의 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매우 유용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레미야 36장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의 요시야 이야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새로 발견된 두루마리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경우 그들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심지어 모세의 계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왕에게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방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두루마리, 즉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모두 심판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신명기 28장과 같은 구절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를 듣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통해 유다에 내리실 언약의 저주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두 왕의 반응이다.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야가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을 낮추고 응답하고 간구하여 마침내 유다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요시야와 그의 신하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읽은 결과로 일어나는 온갖 긍정적인 개혁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야김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왔을 때 그가 두루마리를 잘랐다고 알려줍니다. 카라(qara)는 한 구절에서 요시야의 옷이 찢어진 것을 언급하는 동일한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 두루마리가 찢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우상 숭배의 일부로 사용된 모든 이교 기구를 불태웠음을 알려 줍니다.

요시야의 이야기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열왕기하 22장과 23장과 예레미야 36장 사이에 매우 가까운 유사성과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과 두려움과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한 사람은 메시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움과 분노, 적개심 없이 반응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유다는 심판을 면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는 왕의 반응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저는 미국 정치사의 한 순간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88년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되돌아보면, 지금 여러분 중 상당수는 너무 어려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로이드 벤슨과 댄 퀘일은 부통령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Michael Dukakis와 George Bush Sr 사이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토론의 어느 순간 Benson 상원 의원은 Dan Quayle이 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Quayle은 이 민주당 후보로 돌아가서 John F. Kennedy로 돌아가서 그가 동일한 기본 경험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같은 나이였으며 이것이 Benson 상원 의원의 비난에 대한 그의 반응임을 지적했습니다. Benson은 Quayle에게 응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퀘일 상원의원님, 저는 잭 케네디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 케네디는 내 친구였습니다. 당신은 잭 케네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해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논쟁에서 매우 강력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의 서술자는 여호야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호야김 왕이여, 당신은 히스기야가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여, 당신은 요시야가 아닙니다. 나는 요시아를 알았습니다.

요시아는 내 친구였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의 반응으로 인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26장부터 45장까지 공부하면서 이 점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야김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36장.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20회, 예레미야서 26-36장에 나오는 불순종의 패러다임 여호야김입니다.